

“독도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알고 싶었다”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출범

김관용 경북지사 시상금·전남도 인재육성기금 각 1억 기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가 23일 '실크로드 경주 2015' 관람과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기탁을 위해 경북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방문했다.

이 여사는 이날 '전라남도의 날' 행사를 위해 경주 엑스포를 찾은 이낙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기탁식에 참석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연말 광주방송 목민자치대상의 시상금 1억원을, 전남도는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1억원을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 여사)에 기탁해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의 출범을 알렸다.

장학기금 기탁은 김 지사가 시상금을 영호남 상생발전과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김대중평화센터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도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대중평화센터, 전남도, 경북도 등이 그동안 세부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을 협의해왔다.

이 여사는 “이번 기탁금을 종자돈으로 장학기금을 계속 확대 운영·호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도 장학기금이 영·호남 상생과 대화합,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장학기금 마련을 계기로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복 70주년 '독도 바닷물고기 탐구' 펴낸 최윤 군산대 교수

“역사학자들이 독도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하는 것처럼 어류학자로서 독도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56·한국어류학회 회장) 교수와 어류학실험실 연구원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해역 물고기 108종을 소개한 160쪽 분량의 '독도 바닷물고기 탐구'를 최근 펴냈다. 독도 수중환경을 촬영한 30분짜리 동영상 CD도 첨부돼 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독도의 식물과 곤충, 새를 비롯한 육상생물 연구는 이뤄졌지만 독도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면서 “독도해역 어류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 연구팀은 독도 수역에서 12목4과 108종의 물고기 서식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수중촬영했다. 특히 국내 미기록종인 망둥어(망둥어)가 독도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독도열록망둥어’로 명명했다.

‘열록망둥어’가 열록달록하고 빨바다에 사는 반면 ‘독도열록망둥어’는 열록말 같은 띠줄무늬가 있고 깨끗한 바위나 돌틈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종 서식 실태 낱말이 소개

수중환경 촬영 동영상 첨부

미기록종 '독도열록망둥어' 발견

최 교수는 “독도는 6개월 이상 '쿠로시오(黑潮) 난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슷한 어류 분포를 보였다”며 “과거 독도 수역 물고기 조사자료가 없어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서식 어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도수역 물고기 연구작업에는 최 교수를 비롯해 김지현 박사(잠수공학), 김동식·윤순태 영상감독(대학원 박사과정), 최승호 박사, 이흥현 박사(어류학 실험실)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 교수는 오래전부터 독도 물고기를 연구하고 싶었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경비도 만만치 않아 임무를 내지 못했다. 그런 터에 7년 전 스킨스쿠버 전문가이자 수중 촬영감독인 김동식 씨가 대학원에 입학하며 연구작업에 탄력이 붙었고, 2년 전 환경부 지원을 받



며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김동식 감독의 이전 작업을 포함해 10여년 동안 300여일 독도 수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독도해역 물고기 80%가량을 수중촬영했다.

연구팀을 가장 괴롭힌 것은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최 교수는 “1주일 기상예보를 보고 갔어도 울릉도에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독도에 어렵게 들어갔어도 속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선착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자정까지 잠잠하던 바다가 새벽 3~4시에 급변했다”고 말했다. 독도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좋은 날씨는 1년 365일중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군산 출신인 최 교수는 어류학자의 길로 들어선 계기로 어릴적 바닷가에서 뛰놀던 성장 배경과 40여년간 물고기 연구에 매진한 김익수(73) 전북대 명예교수와의 만남을 꼽았다. 전공분야도 은사의 권유로 상어를 전공하게 됐다.

그동안 ‘검은꼬리상어’ 등 4종류의 한국 미기록종 상어를 발견·보고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상어가 전류를 싫어한다는 점에 착안해 ‘상어공격 방지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됐다.

최 교수는 “1990년대 초반 군산 연안에 88종의 해양생물이 살았는데 새만금 개발에 따라 현재는 30종도 되지 않는다”며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보호를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된다. 앞으로 연안에 있는 ‘조수 웅덩이’에 어떤 해양생물이 사는지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군산=박금희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안호상 극장장 등 22인 문화위원 이사 위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운영업무를 맡을 아시아문화원 창립 이사회가 꾸러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23일 문화전당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원 설립을 위한 창립이사회를 열었다.

창립이사회 멤버는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을 비롯해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 이흥재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송숙남 광주대 조형디자인 교수, 강명신 문화창조융합센터 센터장,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 부원장, 이용훈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해돈 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최재근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네팔·아이티 지진 응급 구조활동 등 생생히 ...

전남대병원 개원 105주년 사진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개원 105주년 기념 ‘인술 105년 의료·사회봉사 사진전’을 오는 10월11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연다.

전남대병원원은 그간 국내외 의료 오지와 대형사고 지역 등에서 펼쳤던 의료·사회봉사 활동상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사진을 통해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진이 발생했던 네팔, 아이티,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의료지원, 섬마을 주민 무료진료, 외국인 환자 진료, 광주U대회 메르스 예방 캠페인, 연탄 배달, 나눔장터 등 사진 3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네팔과 아이티 지진 때 현지에서 응급구조활동을 펼치는 의료진과 이를 지켜보는 현지 주민들의 표정 사진에서는 당시의 긴박함과 절박함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와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고 나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기도 한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전남대병원의 의료·사회봉사활동의 역사를 재 정리하고, 환자와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돌고래호 생존자 구조 박복연·김용자 부부 '완도 군민상'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생존자 3명을 구한 완도선적 '97-홍성호'의 선장 박복연씨와 부인 김용자 씨가 23일 '자랑스러운 완도 군민의 상'을 수상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6월 이른 새벽 추자도 근해를 지나던 중 뒤집힌 채 표류하던 돌고래호의 생존자 3명을 구조했다.

박 선장은 키를 잡고 부인 김씨는 구명환을 줄에 묶어 던지기를 수십 차례 시도한 끝에 이들을 바다에서 구했다.

구조소식을 전해들은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날 이들을 초청해 '군민의 상' 표창패를 수여했다.

국민안전처도 24일 박씨 부부를 장관실로



초청, 제1호 '참 안전인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취업 준비생 웃값 걱정 덜어주기

KT&G, 전남대에 정장 42벌



KT&G 전남본부가 23일 전남대에 1000만 원 상당의 정장 42벌을 기부했다. “급하게 면접을 준비하게 된 취업 준비생들의 웃값 걱정을 덜어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부다. KT&G 전남본부 사회공헌팀(상상UNIV) 이지연 대리 등이 취업 시즌을 맞아 자기소개서와 취업 면접 팁을 알려주는 것 외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생각해냈다.

전남본부는 이렇게 해서 여성정장 12벌, 남성정장 30벌을 구입했다. 상·하의와 셔츠·블라우스 등을 포함한 여성의 경우 55~77까지 3개 사이즈를 갖췄고 남성은 상의(95~110), 하의(28~34)별로 구비했다. 넥타이에 간단한 액세서리도 포함됐다.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기업 면접 때 위원이 선호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자문 받아 선택하는 등 꼼꼼하게 챙겼다. 정장 구입 비용은 상상펀드에서 지원했다. KT&G 상상펀드의 경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한 금액과 회사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으로도 조성해 운영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정은숙(송출화원 대표)씨 아들 김진수(광주일보 사진부 기자)군 박순배(고려내과 대표)·이옥희씨 딸 지유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능성동 메종 드 보네르(구 꿈의공원) 1층 보네르홀.
- ▲김복수(전 광주일보 총무국장)·남혜련씨 아들 현영(신영하이테크)군 조경준·정안순씨 딸 성인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호텔프라자 2층 다이아몬드홀.
- ▲서성호·최성자씨 아들 진열(순천경찰서)군 손수봉(광주태권도관장협회 사무국장)·김복씨 딸 랄란(광산구청)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능성동 메종 드보네르 5층 그랜드볼룸홀.

동창회

▲정광중(31회)·정광고(29회) 동창회(회장 김일근) 정기총회=26일(토) 오후 1시 정광중·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010-5664-6503.

알림

- ▲이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12는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임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임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모집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 =보통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회원=담양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품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충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부음

▲박영애씨 별세 마정주·마삼훈씨 모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 嚴 廣 君 (남/80세) 子/子婦: 임정호/서수경 女/婿: 임선경/김광우, 수경/조광래, 정선/송경호 未亡人: 임정자 *발인: 9월 25일 *장지: 전남친주교부활의림 *연락처: 227-4381	401호 故 박인익 (여/78세) 子/子婦: 정근수/조인근/김기명 女/婿: 조은숙/이태은, 미숙/백국기 *발인: 9월 24일 *장지: 화순 이서 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 김은순 님 (여/83세) 子/子婦: 이상기/이혜란 女/婿: 김성숙/이광현, 영희/박종범, 예란/김윤호 未亡人: 수진/김남규 *발인: 9월 25일 *장지: 무안 봉탄 선영 *연락처: 227-4384	101호 故 이계관 님 (남/70세) 子/子婦: 이광근/강은미, 석용/유정은 女/婿: 이영은/박광민, 성은 未亡人: 강경숙 *발인: 9월 24일 *장지: 5.18묘역 *연락처: 227-4385
102호 故 나운현 님 (남/77세) 子/子婦: 나정수/김이현, 정진/소정미 *발인: 9월 24일 *장지: 영랑묘역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